



## 예거 르쿨트르, 중국 청두에서 The Sound Maker 전시회 발표

저명한 스위스 아티스트 지문과 협업한 작품을 공개하며,

차임 시계의 풍부한 유산을 탐구합니다.

그랑 메종이 워치메이킹 사운드의 예술을 예찬하는 하이라이트인 The Sound Maker 전시회가 11 월 10일부터 11 월 22 일까지 청두 광동 홀(Guangdong Hall)에서 선보입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창의적이고 문화적인 세계로 관람객을 초대하는 이번 전시회는 그랑 메종만의 풍부한 과거와 현재, 미래의 유산을 탐구할 뿐만 아니라, 여전히 일상의 배경이 되어주는 메종의 본고장인 발레 드 주의 자연의 소리에 경의를 표합니다.

### 새롭게 의뢰한 예술 작업의 세계적인 공개

전시회의 중심에서는 시계 제작과 예술 간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예거 르쿨트르가 스위스 모던 아티스트인 지문(Zimoun)에게 의뢰한 새로운 '소리 조각품' 설치 작품이 처음으로 공개됩니다. 중국에서 첫 선을 보이는 이 설치 작품은 2021 년에 전 세계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지문은 이 새로운 작업에 매뉴팩처와 주변의 자연 세계에 울려 퍼지는 소리의 세계를 모두 녹여냄으로써, 예거 르쿨트르의 정신에 내재된 본질을 보여줍니다. 그는 시계 부품을 포함한, 단순한 원자재와 용도가 변경된 산업 부품으로 조각, 움직임, 소리에 대한 전통적인 사상을 재정의하여 관람객을 초월적인 감각 경험의 세계로 끌어들이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CEO 캐서린 레니에(Catherine Rénier)는 “처음에는 마음을 부드럽게 가라앉혀 주는 빗소리라도 같은 소리에 매료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금속의 움직임에 시선을 사로잡혔죠. 각각의 각도가 다른 느낌을 주어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소리를 들으며 즐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평범한 소재에서 낭만을 불러일으키고, 정교한 구조 및 기계 시스템을 통해 특정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소리를 만드는 것과 같이 아티스트의 작업과 예거 르쿨트르 매뉴팩처 워치메이커 사이에는 분명한 유사점이 있습니다. 시계 무브먼트의 구성 요소가 조립을 거쳐 자체적인 생명을 얻는 것처럼, 산업적으로 생산되어 지문이 조각품에 결합한 요소들은 새롭고 독특한 소리와 시각 효과를 생성하여 고유한 행동 방식을 개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새 작품을 의뢰할 때, 예거 르쿨트르는 아티스트를 발레 드 주로 초청하여 자연이 선사하는 소리를 받아들이고, 매뉴팩처 내에서 차임 시계를 제작하는 전문가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문화와 아이디어의 풍부한 교류로 완성된 지문의 새로운 설치 작품은 예거 르쿨트르의 독특한 사운드 시그니처를 만들어내며 자연과 매뉴팩처의 소리를 떠올리게 할 뿐만 아니라, 워치메이킹 아뜰리에에서 바라본 호수 표면의 반짝이는 물결까지 담아냈습니다.

### **예거 르쿨트르의 사운드 스토리**

The Sound Maker 전시회는 187년의 역사를 이어온 그랑 메종의 전통과 혁신의 두 가지 가치를 기념하며, 예거 르쿨트르의 풍부한 유산으로 관람객을 초대합니다. 역사적이고 현대적인 컬렉션에서 선별된 진귀하고 특별한 시계와 이전에 전시된 적 없는 문서 및 공예품을 선보이는 이번 전시회는, 그랑 메종의 첫 모델부터 2020년의 새로운 모델을 비롯하여, 가장 섬세한 미닛 리피터와 정교한 소네리, 실용적인 기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메모박스 알람 시계에 이르기까지, 예거 르쿨트르의 차임 시계의 발자취를 따라가봅니다.

이전에 대중에게 공개된 적이 없는 모델들을 포함하여 르쿨트르 차임 시계 중 가장 오래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작품들을 되돌아보는 것으로 시작되는 이번 여정은, 무브먼트를 공급한 메종 중에서도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라는 예거 르쿨트르의 세계적인 명성에 기여한 기술 발명과 특허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또한, 차임 시계가 작동하는 방식의 내부 비밀을 밝히고, 진귀한 시계를 장식하기 위해 진귀한 메티에 라르 기법을 사용하는 장인의 탁월한 노하우에 찬사를 보냅니다.



발레 드 주에 있는 그랑 메종의 발상지에 경의를 표하는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을 계곡의 자연스러운 음악적 파노라마에 빠져들게 함으로써 워치메이커와 주변 환경 사이의 깊은 연관성을 떠올리게 하는 매력적인 8D 영상 설치 작품도 선보입니다.

The Sound Maker 전시회는 9 월 10 일부터 9 월 22 일까지 중국 시노-오션 타이쿠 리 청두(Sino-Ocean Taikoo Li Chengdu)의 광동 홀에서 열립니다.

---

### **The Sound Maker 소개**

2020년 예거 르쿨트르는 150년간 축적해온 전문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함으로써, 발레 드 주의 일상적인 자연의 소리와 차임 시계의 위대한 유산에 경의를 표하는 The Sound Maker 에 찬사를 보냅니다. 1870년, 매뉴팩처가 첫 번째 미닛 리피터를 개발한 이후 150년 동안 차임 시계는 간단한 알람부터 극도로 정교한 소네리와 리피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선보이며, 전문성을 입증하는 200개의 칼리버를 통해 강점을 드러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매뉴팩처의 엔지니어와 디자이너들은 음향의 품질과 그 기준을 새롭게 정의하는 수많은 혁신 기술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